

광주FC 힘찬 시동 “아침 16강·파이널A ‘두 토끼’ 잡는다”

수석 코치 승격 마철준, 태국 코사무이 동계훈련 이끌어 26~2월 3일 일본에서 실전 감각조율·조직력 강화하기로

광주FC가 또 다른 도전을 위해 스파이크르를 다시 조여왔다. 이정호 감독이 이끄는 광주는 1차 동계훈련을 위해 지난 3일 태국 코사무이로 출국했다. 광주 선수단은 따뜻한 기후의 코사무이에서 23일까지 기초 체력 향상 및 전술 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몸만들기에 집중하게 된다. 이어 26일부터 2월 3일까지 일본 오사카로 무대를 옮겨 실전 감각 조율과 조직력 강화에 나서게 된다. 동계훈련 출발에 앞서 광주는 2025시즌을 이끌어 갈 코칭스태프 구성을 완료했다. 이정호 감독을 필두로 기존 스태프 대부분이 잔류한 가운데 마철준 코치가 수석코치로 승격했다. ‘이정호 사단’의 수석코치를 맡게 된 마철준 코치는 2013년부터 광주에서 플레이 코치를 하며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고, 제주유나이티드와 대구FC에서 수석코치를 역임한 바 있다. 광주는 2025시즌 지원스태프 구성도 끝냈다. 지원 스태프는 트레이너 신용삼·김민식·고한솔·양재혁, 통역 최혁순, 분석관 육태훈, 팀 매니저 전충휘, 장비 담당 오동영으로 구성됐다. 코칭스태프 구성을 끝내고 아침 차게 동계훈련을

시작했지만 갈 길은 멀다. 이정호 감독의 ‘이적설’ 논란 등으로 선수단 구성이 늦어졌고, 지난 시즌 ‘부주장’으로 활약한 이희균과 공격수와 수비수를 오가면서 ‘전천후 선수’로 자리매김한 허을 등 ‘정효볼’ 핵심 선수들의 이적도 있었다. 선수단 구성을 완료해야 하고 새 얼굴들과 호흡을 맞춰야 하는 등 광주 입장에서 일본일초가 아쉬운 상황이지만 실전이 한 달여가량 밖에 남지 않았다.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 리그(ACLE) 일정이 광주를 기다리고 있다. 4승 1무 1패(승점 13)의 전적으로 동아시아그룹 2위에 자리 하고 있는 광주는 2월 11일 산둥 타이산(중국)과의 원정경기에 이어 2월 18일 부리람 유나이티드(태국)와 홈경기를 갖고, 16강행을 타진하게 된다. K리그 2025 정규 시즌도 예년보다는 빠른 2월 중순 시작될 예정인 만큼 지난 시즌 강행군을 이어왔던 광주는 2월 초부터 바로 실전 체제로 전환해 바쁘게 달려야 한다. 광주는 코사무이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빠르게 실전 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김여울 기자 wool@



광주FC 선수단이 지난 3일 1차 동계훈련지인 태국 코사무이로 출국하기 앞서 인천공항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광주 FC 제공>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시즌 첫 승

부산시설공단에 27-24로 이겨

광주도시공사가 부산시설공단과의 맞대결에서 시즌 첫 승에 성공했다. 광주도시공사는 5일 청주 SK호크스아레나 경기장에서 열린 부산시설공단과의 시즌 두번째 경기에서 27-24로 이겼다. 앞서 지난 2일 같은 곳에서 열린 경남개발공사와의 시즌 개막전에서 패했던 광주도시공사는 부산시설공단을 상대로 두 번째 경기에서 승리를 만들었다. 부상복귀한 센타백 송혜수와 골키퍼 이민지가 맹활약을 펼쳤다. 광주도시공사는 전반전에서 완벽한 경기를 선보이며 16-7로 점수차를 벌려 부산시설공단을 제압했다. 전반 3분 서아루가 첫 득점을 만들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다. 부산시설공단 김다영의 과감한 슈팅으로 동점이 됐지만 김지현의 슈팅이 골키퍼의 손을 스치고 골문으로 들어가면서 2-1이 됐다. 이후 광주도시공

사가 앞서고 부산시설공단이 한 점 차로 따라붙는 양상이 만들어졌다. 전반 10분 김지현의 도움을 받은 김수민의 득점으로 6-4로 앞선 광주도시공사는 이아현, 김지현, 서아루의 득점으로 9-4까지 격차를 벌렸다. 이날 경기에서는 지난 시즌까지 함께했던 원선필과의 맞대결이 전개됐다. 전반 17분 부산시설공단 김다영의 슈팅을 광주도시공사 이민지가 막아냈지만 원선필이 리바운드 슈팅으로 득점하면서 9-5로 추격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정현희, 김지현, 김금정, 송혜수의 연속 득점으로 13-5로 달아났다. 곧바로 부산시설공단 김다영의 득점이 나오면서 13-6, 전반 27분 연지현이 주저앉으면서 날린 백슛이 득점으로 연결됐다. 원선필이 중앙에서 골에 성공하며 14-7이 됐지만 7m 드로우 상황에서 서아루가 득점에 성공했다. 서아루는 전반 종료 1분을 남기고 거침없는 윙 플레이를 선보이며 16-7로 전반전을 완벽하게 마무리 했다. 후반 들어 부산이 매섭게 반격에 나섰다지만 광주

는 쉽게 점수를 허용하지 않았다. 후반 3분 부산시설공단 송해리와 문수현이 연속 득점했지만, 완벽한 피벗 플레이를 선보인 김금순이 수비벽을 뚫고 득점하며 17-9를 만들었다. 광주도시공사가 후반 10분 김수민과 송혜수의 콤비로 20점에 먼저 달았다. 경기가 막판 부산시설공단이 뒤늦게 추격해왔지만, 앞서 안정적으로 점수를 쌓은 광주도시공사가 역전을 허용하지 않았다. 후반 25분 부산시설공단 이해원의 슈팅이 골로 연결되면서 25-20, 5점 차가 됐다. 경기 종료 1분여만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나온 송혜수의 골로 27-23을 만든 광주도시공사는 경기 종료 직전 터진 서아루의 골로 27-24, 첫승을 기록했다. 이날 서아루가 10득점, 김지현이 5득점, 송혜수가 4득점을 올렸다. 8개의 도움도 기록한 송혜수는 경기 MVP로 선정됐다. 골키퍼 이민지는 11개의 세이브를 기록하며 광주도시공사의 승리를 지켰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대전 ‘K리그1 득점왕’ 주민규 품었다

2013년 데뷔 후 두 차례 득점왕

프로축구 대전하나시시티즌이 두 차례나 K리그1 득점왕에 올랐던 ‘베테랑 스트라이커’ 주민규(34·사진)를 영입하며 공격력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대전 구단은 5일 주민규의 영입을 발표했다. 계약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2년 이상 계약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규는 대기만성형 스트라이커로 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골잡이다. 2013년 2부리그 고양 HI FC에서 프로에 데뷔한 주민규는 2015년 서울 이랜드FC로 이적해 세 시즌 동안(2015-2018년) 71경기에서 37골 10도움의 좋은 활약을 펼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주민규는 2017-2018년 상주 상무 시절에도 두 시즌 동안 21골을 쏟아내며 2019년 울산 HD 유니폼을 입었지만, 이듬해 2부 리그였던 제주 유나이티드로 이적,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다. 2020년 8골을 터트려 제주의 1부 리그 승격에 힘을 보탠 주민규는 2021년 34경기에서 22골 1도움으로 생애 첫 K리그1 득점왕의 기쁨을 맛봤다. 주민규는 2023년 울산으로 이적해 36경기에서 17골을 폭발하며 생애 두 번째 K리그1 득점왕에 올랐다. 울산 팬들은 주민규에게 ‘늦게 핀 꽃’이라는 별명을 지어주며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발광이



빛나는 주민규를 칭찬했다. 30대에 접어들며 농익은 득점 감각을 발휘한 주민규는 지난해 3월 황선홍 감독이 대표팀 임시 사령탑을 맡을 당시 33세 333일의 역대 한국 축구 최고령 ‘첫 국가대표 발탁’의 영광을 맛봤다. 더불어 주민규는 지난해 3월 21일 태국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조별리그 C조 3차전에서 33세 343일의 나이로 역대 최고령 A매치 데뷔전을 치르기도 했다. 새로운 도전에 나선 주민규는 황선홍 감독의 러브콜을 받고 대전 유니폼으로 갈아입었다. 대전은 주민규 영입에 앞서 포항 스틸러스에서 맹활약하며 지난해 코리아컵 MVP와 득점왕을 휩쓴 정재희도 데려오면서 최전방 공격 라인 강화에 큰 힘을 쏟았다. /연합뉴스

‘빅리그 진출’ 김혜성, 일본서 MLB 데뷔전 치를까

다저스, 3월 18~19일 도쿄서 컵스와 MLB 개막시리즈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계약한 김혜성(25)은 미국이 아닌 일본에서 빅리그 데뷔전을 치를 가능성이 있다. 다저스는 3월 18일과 19일 일본 도쿄돔에서 2025 MLB 정규시즌 개막전 ‘도쿄시리즈’ 시카고 컵스와 2연전을 치른다. MLB 사무국은 야구의 세계화와 홍보를 위해 세계 각지에서 리그 개막전을 열어왔다. 2024년엔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김하성(자유계약선수)의 전 소속 팀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다저스가 맞붙었다. ‘서울시리즈’ 흥행에 성공한 MLB는 올해도 아시아에서 개막전을 연다. 오타니 쇼헤이, 아야모토 요시노부가 속한 다저스와 스즈키 세이야, 이마나가 쇼타의 소속 팀인 컵스의 개막 2연전을 도쿄에서 치르기로 했다. 일본 선수들의 무대가 될 것 같았던 2025 MLB 개막전은 한국 팬들의 이목도 사로잡게 됐다. 김혜성이 다저스와 계약하면서다. 김혜성은 4일 다저스와 3+2년 최대 2200만달러(약 324억원)에 계약했다. 다저스는 3월 15일 일본프로야구 최고 명문 팀인 요미우리 자이언츠, 3월 16일 한신 타이거스와 연습경기를 치르고 하루 휴식 후 컵스와 개막 2연전에 나선다.

김혜성은 2월 중순부터 미국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의 캐벌백 랜치에서 열리는 다저스의 스프링 캠프에서 본격적인 빅리그 생존 경쟁을 시작한다. 김혜성이 MLB 시범경기 초반부터 경쟁력을 입증한다면 빅리그 로스터 26인에 포함돼 도쿄시리즈에서 이른 데뷔전을 치를 수도 있다. 다저스는 새 시즌에 유격수 무키 베츠, 2루수 개빈 렉스로 키스톤 콤비를 꾸릴 예정으로, 김혜성은 현실적으로 백업 내야수 자리를 확보해야 한다. 지난해 샌디에이고에 입단한 오른손 투수 고우석(마이애미 말린스)도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고우석은 동료들과 함께 서울행 전세기를 타고 연습경기에도 출전했지만, 정작 다저스와 서울시리즈 개막 2연전 엔트리에선 제외됐다. 고우석은 미국으로 돌아간 뒤 곧바로 마이너리그로 내려갔다. 고우석의 사례를 비추면, 도쿄시리즈는 김혜성의 팀 내 입지와 새 시즌 전망을 살펴볼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혜성은 지난해 한국 야구대표팀 소속으로 다저스, 샌디에이고와 서울시리즈 연습경기에 출전했다. 당시 김혜성은 다저스 보비 밀러의 시속 157km 강속구를 공략해 우익수 방향 2루타를 터뜨리는



등 활약하며 MLB 스카우트의 눈길을 사로잡기도 했다. 연습경기 파트너 1년 만에 김혜성은 이젠 정식 MLB 선수로 개막전 출전을 노린다. 한편 다저스의 시범경기 개막전 상대도 컵스다. 다저스는 2월 21일 캐벌백 랜치에서 컵스와 상대한다. 3월 2일엔 이정후의 소속 팀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시범경기를 펼친다. 다저스는 3월 12일까지 시범경기를 하고 일본으로 출국한다. 도쿄시리즈를 치른 뒤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로스앤젤레스 애인절스와 시범경기 3연전을 벌인다. 미국 본토 개막전은 3월 28일에 열린다. 다저스타디움에서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를 상대한다. /연합뉴스

FA 김하성은 어디로 갈까

미 매체, 다저스·탬파베이·밀워키 등 거론

4일(한국시간) 내야수 김하성(25)이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와 계약한 가운데 자유계약선수(FA)로 시장에 나와 있는 내야수 김하성(사진)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2024시즌까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서 뛰고 FA가 된 김하성의 다음 소속팀에 대해 미국 매체들이 다양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12월만 하더라도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다저스, 탬파베이 레이스, 밀워키 브루어스 등이 김하성을 영입할 가능성이 있는 팀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4일 스포츠일러스테이트(SI)는 김하성에 대해 애틀랜타 브레이브스행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이 매체는 “김하성이 어깨를 수술해 FA 계약에 영향을 받았으나 김하성은 애틀랜타에도움이 될 훌륭한 선수”라고 평가했다. 2024시즌 애틀랜타의 주전 유격수 올란도 아르시야는 타율 0.218, 안타 120개, 홈런 17개, 46타점을 기록했다. 김하성은 지난 시즌 샌디에이고에서 타율 0.233, 안타 94개, 11홈런, 47타점의 성적을



냈다. 메이저리그트레이드루머스닷컴은 지난해 12월에 나왔던 디트로이트행 가능성을 다시 거론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2025시즌 트레이드 스위치가 디트로이트의 주전 유격수를 맡을 가능성이 크며 김하성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00년생 스위니는 2024시즌 타율 0.218, 홈런 4개, 17타점을 기록했다. 디트로이트는 2024시즌 뉴욕 양키스에서 2루수로 주로 활약한 글레이브 토레스를 최근 FA로 영입한 바 있다. /연합뉴스